

第103回 國 會 會 議 錄 開會式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79年 9月20日(木) 午前10時開式

第103回國會(定期會) 開會式順

- 1. 開式
- 1. 國旗에 대한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를위한默念
- 1. 開會辭
- 1. 閉式

(司會 儀典課長 安重基)

(10時4分 開式)

○儀典課長 安重基 지금으로부터 第103回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敬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國旗를 향하여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습니다.

齊唱은 錄音前奏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다음은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를위한默念을 올리겠습니다.

(一同默念)

着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白斗鎭 尊敬하는 大法院長 閣下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政治·經濟·社會등 모든分野에 걸쳐 그 어느때 보다는 多事多難한 狀況속에서 第103回 定期國會의 開會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美·蘇 第2段階戰略武器制限協定이 締結되는가 했더니 極東에서의 蘇聯海軍

力의 두드러진 增強이 世界의 耳目을 끌었고 「카리브」海의 危機로 緊迫感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또 안으로는 一部人士들의 度에 넘친 無責任한 言行은 國民의 分裂을 助長시킬 뿐만 아니라 北傀를 鼓舞할까 念慮마저 됩니다.

이 時點이야말로 國民總和를 이룩하고 國力を 組織化하며 能率의 極大化를 이룩하는 가운데 國力を 培養하여 나라와 겨레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自由를 守護할때입니다.

얼마 前 美下院軍事委員會가 指摘했듯이 「北傀가 單獨으로도 서울을 奇襲 占領할 能力이 充分히 있다」는 衝擊的이고도 深刻한 問題를 提起해주고 있는 安保의 狀況이 展開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같은 어려운 對內外與件속에서 80年代의 雄飛를 期約할 문턱에 서 있습니다.

第10代國會로서는 처음 맞이하는 定期國會이자 80年代의 第1次年度 豫算案을 審議하는 우리로서는 80年代를 내다보는 國政의 長期的方向을 가능하게 되는 重大한 時期이니 만큼 小我를 떠나 오직 國家의次元에서 巨視的眼目으로 眞摯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으며

나아가 立法議員으로서 遵法에 보다 透徹함으로써 國民으로부터 더욱 尊敬받고 信賴

받는國會가 되리라는 것을銘心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이켜 보면 우리經濟는 70年代에 들어와政府와 온國民의 피땀어린努力으로持續的인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成長이 컸던만큼 여기서派生된 그늘 또한 우리가 크게注意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그늘진 곳을 없애도록努力을傾注하여야 할 것이며北傀挑發에對處하면서國際原油價引上에依한 우리經濟에의衝擊波를克服하도록叡智를 모아야 된다는點을留意하여야 하겠습니다.

親愛하는議員 여러분!

여러분께서도周知하시는 바와 같이昨今の汎世界的資源難은 우리에게物價昂騰現狀을 가져다 주었고 이「인플레이션」收束을 위한緊縮政策은一部企業의休·廢業事態를惹起시켰으며 나아가勞使問題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宗教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人間의聖人化가 그窮極的인日標라고 보는데 그活動이“있는者와 없는者”의對立意識을助長하거나抵抗意識을鼓吹行動化하게 된다면 이는甚히寒心스러운 일입니다.

高度産業社會로의 발돋움과 함께不可避하게擡頭되는 이勞使問題가 어디까지나合理的이며妥當하게發展하여야 될 것인데一部에摩擦이 있는 것은甚히遺憾된 일입니다.

資本의自轉運動이創意와開發建設의原動力이 된다는 우리經濟體制的特徵을 생각하면서도使用主는勞使關係가 마치無契約關係인 것처럼 되어勞使가融和一體가 되도록先導함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事例를工場새마을運動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經濟가驚異的으로成長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水準에서勞使가紛爭의길로만나간다면國土의平和的統一은漸漸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衆智와忍耐 그리고勇氣로써 이難局을克服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國內의混亂을노리는北傀는 우리의平和的인거듭된提議 심지어最近의

3當局會議案이나「발트하임」UN事務總長の居中調停提議마저拒否하고 있으며 이러한北韓共產集團의好戰性 때문에 우리의生存마저威脅當하고 있는現實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本人은最近南美를巡訪하던中面談한國家元首 한분이共產勢力은東南亞細亞를 휩쓸고「아프리카」에上陸한 다음 다시南美洲에上陸할 것이라고披瀝한바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가이아나」에는 이른바“金日成主體思想研究組”라는名分下에北傀工作員들이暗躍하고 있으며,

美國의內海나 다름없는「카리브」海上의「쿠바」에는蘇聯實戰部隊가配置됨으로써非同盟會議의主催國인「쿠바」가自國領土에相當한規模의外軍을駐屯시키는自己矛盾을 드러내는가 하면蘇聯은世界赤化戰略遂行을 위한野心的前進基地를設置함으로써美國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과같은 새로운冷戰機微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親愛하는議員 여러분!

北傀는 무너질 것이 틀림없으나 그때야말로周邊國家의干涉을排除하고오로지祖國統一을達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自身の 힘만이自生救國의原動力이라 생각합니다.

北韓은經濟的으로破綻의 길을 걸달음치고 있으며金日成獨裁體制가崩壞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만武器生産이나4大軍事路線에狂奔하고 있기 때문에最後發惡을試圖할 수 있는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冷嚴한現實을直視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韓半島의周邊情勢는蘇聯과越南에挾攻當하고 있는中共이美國의影響으로韓半島에勢力擴張을 꾀할 수 있는可能性을排除할 수 없고歷史的으로도強大國의力學政治가얼마나 우리에게 많은犧牲을強要해 왔다는 것은周知의事實입니다.

美國은世界的인役割을繼續 줄여나가는傾向에 있고世界の自由國家群은各其 그

責務의 遂行을 要求當하고 있습니다.

특히 世界가 豫防戰爭은 勿論이고 挑發된 戰爭마저도 强者間 協商으로 解決하려는 國際의 情勢의 時代로 접어 들어서고 있느니 만큼 中小國家의 獨立과 國民의 生存은 늘 暴風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協商의 祭物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오직 國家의 自強 그 自體가 必要하며 우리가 萬若에 國力培養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歷史的 罪人이 된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時急히 達成하여야 할 目標은 國力培養과 自主國防力의 強化이며 이러한 脈絡위에서 議員 여러분께서는 國政을 審議할 때에 責任을 痛感하시고 政府의 關係當局者 여러분도 議員들의 意見이 바로 國民意思의 代辯이라는 點을 銘心하여 政策 執行에 秋毫의 疏忽함도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政治的 立場은 다르고 또 政治理念을 俱現하는 方法에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그 目標이 이 땅의 戰爭을 막고 오로지 이 나라의 繁榮을 바라는 愛國衷情에 있다는 것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國政을 討論하는데 있어서 眞摯한 對話와 說得으로 妥結點을 찾고 有終의 美를 거두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國會가 議會民主主義에 있어서 政治의 總本山이라고 할진대 모든 어려운 國政은 法の 테두리안에서 國會에서 學論되고 民主的 節次에 따라서 解決되어야 하며 處理되는 모든 議事에 對하여는 우리 다같이 政治的 責任을 져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 豫算이 國防第1主義를 擇하는 것은 不可避합니다. 自立經濟의 早期達成은 至上命題입니다.

이러한 大前提 밑에서 豫算의 非「인플레이」性과 信用創造가 追加需要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 또 「에너지」源인 原油는 어떻게 確保하며 代替「에너지」開發의 努力이 石油化學 重工業과 어떠한 關聯性을 지니고 있는가.

또한 文化水準을 앞세운 消費類型의 多岐化가 國際競爭力에 어떻게 影響할것인지 等

等 檢討 審議할 點이 이루 例舉할 수 없을 程度로 많습니니다.

그러나 한가지 確實한 것은 現下 經濟的沈滯속에서도 우리가 他國과 同質의 物件을 우리의 頭腦와 技術로써 만들어 낼 때 우리는 先進工業國과도 競爭할 수 있다는 事實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限定되어 있는 이번 會期안에 國民生活에 直結되는 새해 豫算案과 其他 主要議案을 審議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國會를 生産的이고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維新國會像을 確立하는데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여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는 同時 政治人으로서의 責務를 完遂하여야 되겠습니다.

議員 諸位의 健康과 家庭의 幸福을 祈願합니다.

○儀典課長 安重基 이상으로써 第103回 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時20分 閉式)